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CCNE 인가 취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간호학(RN to BSN) 프로그램이 CCNE(The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인가를 취득했다.

CCNE는 미국 교육부 장관(national accreditation agency)이 인정하는 공식 인가 기관으로 간호학 학사학위, 대학원, 레지던트, 펠로우 프로그램의 품질과 통합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졸업생들의 실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CCNE인가를 취득하게 됐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CCNE 인가는 대외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고 대단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간호학과가 CCNE 인가를 받음으로써 영어권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한인 간호사들에게도 더욱 양질의 간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CCNE 인가를 받기 위해 학과장인 이영주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1년 여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번 CCNE 인가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일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 학교 내외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행사를 가졌다.



지난 2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된 CCNE 인가 취득 축하행사

축하 모임에는 세계한인간호사협회(OKNA : oversea Korean Nurse Association) 모니카 퀸 이사장,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KANASC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사라고 부회장, 3C Medical Clinic 김영옥 원장 등 한인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2부 행사에서는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3기생이 주관한 논문발표가 있었다. 고혈압, 맞춤형 건강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접근(Hypertension, community based Approach through tailored health education: 3기 박미숙 간호사), 엘에이 한인타운의 무보험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요구도 조사(The Study on needs for outreach activities for uninsured patients in LA Koreatown: 3기 박차순 간호사) 등의 주

제로 논문을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 RN to BSN은 간호사를 위한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 2019년 간호학과 개설 이래 3기에 걸쳐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2023년 간호학과 RN to BSN 과정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마감은 2023년 1월 6일, 문의는 admissions@wmu.edu 혹은 (213) 388-1000 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텍사스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화이트 채플 연합감리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성소수자 문제로 분열 중인 가운데, 텍사스에 있는 4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했다.

美 텍사스 UMC 절반 달하는 400여 교회, 교단 탈퇴

미국 댈러스모닝뉴스(Dallas Morning News)는 최근 휴스턴에 본부를 둔 중앙텍사스연회 소속 598개 교회 중 294개 교회와 러빅 소재 북서텍사스연회 소속 201개 교회 중 145개 교회가 탈퇴했다"고 전했다.

떠나는 교회의 수는 텍사스 UMC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며, 이들은 대부분 새로 설립된 글로벌감리교회(GMC)에 가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MC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지난 5월 공식 출범했으며, 많은 UMC 교회들이 이에 합류하고 있다.

UMC는 공식 장정에 동성결혼 주례를 금지하고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금

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단 내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으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따르기를 거부하며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좌절을 불러일으켰다.

일레로 카렌 올리베토(Karen Oliveto) 목사가 UMC 마운틴 스카이 에어리어의 감독으로 선출된 것을 들 수 있다. 올리베토 목사는 동성결혼한 상태로, 지난 2017년 UMC 사법위원회가 그녀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마크 톨레

이(Mark Tooley) 소장은 최근 몇 달간 UMC를 떠난 교회의 수를 1,300개 이상으로 집계했다.

톨레이 소장은 "내년 말(교회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는 데드라인)까지 적어도 3,000개에서 5,000개 교회가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교단 기관들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기금이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약 630만 명이었던 교인 수가 대략 230만 명 가량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작은 이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0%이자가

NEW 2023 HYUNDAI IONIQ5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Happy Christmas
0% APR for up to 26 months
Payments for 90 days on select models plus \$500 holiday bonus cash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644-7114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감동과 환희 넘쳐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합창단(단장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 이하 라크마)의 제9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지난 11일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라크마는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가득 담은 수준 높은 연주와 풍성한 화음으로 LA 음악 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며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선보였다.

존 루터의 글로리아로 화려하게 시작된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로움을 극대화시킨 O Magnum Mysterium을 비롯해 바흐의 Jesu, Joy of Man's desiring 등 섬세한 선율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줬다.

Carol of the Bells와 Go Tell it 같이 관객들에게 매우 친숙한 곡들을 연주할 때는 장내에 흥겨움이 가득했고 연주가 마칠 때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길교회에서 진행된 라크마 '제9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기독교일보

이어진 2부 무대에서 라크마는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차세대 연주자들과 협업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라크마 장학

생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예술적 기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음악계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했다.

올해 1등 수상자로 선정된 김재영 피아니스트는 난이도 높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완벽하게 연주했으며, 2등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포드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보석의 노래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3등 수상자인 메조 소프라노 조지영은 오페라 돈 카를로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O don fatale"를 뛰어난 기량으로 선보였으며, 주니어 음악 영재로 선발된 7학년 안현진 군은 "지고이네르바이젠"을 화려한 바이올린 선율로 연주하며 매우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최승호 단장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계절에 음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주회였다"며 "올해에도 역경을 딛고 뛰어난 음악적 기량을 쌓고 있는 4명의 훌륭한 차세대 음악인들을 격려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3차 정기총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10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2022년 12월 조찬기도회와 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 이사회는 신용 현 회장의 연임을 참석자 전원의 박수로 의결했다.

42대에 이어 43대 회장에 연임하게 된 신용 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잘 봐주신 이사, 자문위원,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

는 회원 배가 운동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윤우경 이사장의 기도로 시작해 황윤정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신동직 총무가 2022년 사업을 보고했다. 이어 김도영 장로의 감사보고와 한성준 재무부장의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감사를 맡은 김도영 장로는 "예년에 비해 연합회의 전체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재정을 남기지 않고,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3차 정기총회 개최

지역사회와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연합회가 됐다"며 "연합회가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음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동직 총무는 2022년 사업보고로 "유튜브 개설", "평신도 신앙향상을 위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축제", "815 광복절 교계연합 예배 및 성가제",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금 마련 골프대회"를 주요 행사로 보고하고, 무엇보다 연합회 유튜브를 개설해 인기 있는 영상이 4만5천 뷰를 기록함으로 기독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선교사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2023년 1월 14일(토)에 신년하례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찬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전홍 장로가 대표기도 한 후, 연합회 자문위원인 한기원 목사가 "잔인한 하나님"(창세기 22: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원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

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잔인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더욱 잔인한 분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인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신 그 희생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이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잔인함으로 받은 생명과 감사를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소망을 주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 해외 선교사를 위해, 연합회 사역과 이사 자문위원들의 건강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마무리기도는 김도영 장로가 맡았으며, 연합회 2대 회장을 지낸 주도진 목사의 축도로 2022년 마지막 기도회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주 기독교일보 '기독샵' 종합쇼핑몰 오픈

미주 기독교일부가 미주 전 교회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쇼핑과 나눔이라는 테마로 종합 쇼핑몰 기독샵(www.kidokshop.com)을 오픈했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쇼핑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샵은 기존의 수익에 집중된 쇼핑몰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독샵은 '건전한 소비, 나눔을 실천하는 쇼핑'에 맞게 판매금액의 10%는 We Bridge의 작

은 교회를 돕는데 사용된다. 기존 오픈마켓 위주였던 기독교인의 소비를 집중시키기 위한 온라인 유통창구를 개설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기독샵의 현재 일반 밴더 중심으로 운영해 온 쇼핑몰과는 달리 제품을 일일이 소싱하고 배송까지 직접 운영한다. 다양한 한국 제품과 유럽, 일본에서 검증된 제품만을 엄선해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기독교 쇼핑몰의 경우 주 타깃을



기독교인이라는 마니아 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기독샵은 크리스천뿐 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마켓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독샵은 오픈기념으로 20% 세일(기독교적제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99불

에서 100불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생필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단체 특별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선물을 할 곳이 많은 이 때에 단체선물 특가전을 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선물 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카카오톡에서 '기독샵'을 검색해서 QR 코드를 스캔한 후 카톡이 추가되면 교회나 단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문의하고 213-235-6663으로 전화상담까지 가능하다. 미주 한인들에게 쇼핑의 기쁨이 기부의 기쁨으로 확대되어지는 선한 쇼핑몰 '기독샵'이 되기를 기대한다.



GRACE MISSION UNIVERSITY

2023년 봄학기 개강 (2월 6일)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12월 31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 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실시간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2 학교 소개 설명회 (1차)12월 19일(목) 오후 4시, (2차)1월 17일(화) 오후 4시 * 장소: MC 310 강의실 *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이벤트 3 겨울 릴리 공개 특강 - 1월 9~31일(월,화) 4주 5:00~9:30 pm - 선교와 목회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 1월 7일~2월 4일(매주 토요일 9:00am~6:00 pm) - 디지털 목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실습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Tel : 714-525-0088 (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월드미션대 윤임상 교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교향악단 지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음악과 윤임상 교수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립교향악단의 초청으로 지난 1일 코르도바 리베르타도르 산마르틴 극장에서 베르디 레퀴엠을 객원 지휘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던 박종휘 지휘자의 추천으로 성사된 이번 연주회에서 윤임상 교수는 미주 한인 음악계의 높은 위상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윤임상 교수의 제자인 박종휘 지휘자는 파라과이 국립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파라과이 국립 아순시온 음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창단 90주년을 맞은 코르도바 주립교향악단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매우 수준 높은 교향악단으로, 윤임상 교수가 지휘한 이번 공연은 베르디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레퀴엠을 장대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청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립교향악단과 산마르틴 극장에서 베르디 레퀴엠을 지휘한 월드미션대 윤임상 교수. ©기독교일보

중들을 압도하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아름답고 유려한 선율과 변화무쌍한 리듬, 섬세한 멜로디가 강렬한 오케스트라 연

주와 맞물려 웅장한 분위기와 함께 투명한 음색으로 음악적 디테일을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9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이번 연주회는 중간 휴식 없이 독창, 중창, 합창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90분 동안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를 모두 살렸고, 131년 전통의 산마르틴 극장을 찾은 1천 여명의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다.

연주회는 관객들의 끊이지 않는 기립박수와 환호로 커튼콜을 3번이나 해야 했으며,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로 화답했다.

윤임상 교수는 “베르디의 대곡을 최고의 뮤지션들 함께 나누며 그들의 문화적 우수성과 높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연주회를 진행하며 연주자들을 비롯해 관객 모두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되자”

2022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연합회 성탄예배

중국조선족 디아스포라크리스천연합회(회장 김학송 목사,이하 조아연)가 지난 11일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성탄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올해는 성탄연합예배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조선족 형제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선족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보내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예배였다.

이 훈 전도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최동섭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가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디아스포라로 400년을 살 때 고센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 가장 고센은 애굽의 북쪽의 땅으로 애굽인들이 많지 않았고, 애굽이 강대국인고로 다른 민족의 침략 또한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웨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또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민의 역사 또한 시작됐다. 디아스포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의 삶은 고생의 삶이지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자”고 덧붙였다.

김향란 자매가 가야금 헌금특주를 연주했고 서화평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서 목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면서 디아스포라였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요 동지가



사역보고를 전하는 중국조선족 디아스포라크리스천연합회 회장 김학송 목사. ©기독교일보

되자”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조아연 사역이 담긴 동영상 시청한 후 사역보고를 전한 김학송 목사는 “엘에이에 있는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숙한 디아스포라로 한인커뮤니티와 주류사회에 공헌하며 다음세대의 인재를 양육하고 배출하는일이 조아연의 중요한 사역이다”면서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수 있었다. 앞으로도 조아연이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가 성탄예배에 참석한 조선족 가정들 위해 특별 축복기도를 했고 참석한 이들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 가정을 축복했다.

모든 예배는 김지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친교시간에는 GC 네추럴 곡문철대표, 신디 추이 박사, 풍무식당 대표가 협찬해 성경퀴즈와 추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다.

이인규 기자

기독교일보 | 성탄절기를 위한 추천 도서

〈25일간의 성탄 묵상〉

저자: 이장렬 / 출판사: 요단출판사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 25일간의 성탄 묵상 II〉

저자: 이장렬, 이충재 / 출판사: 요단출판사



전세계는 COVID-19으로 인해 여전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충분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든다. 감격 넘치는 성탄절과 반가운 이들과 함께 모여 정겨이 보내던 연말, 연시가 곧 다가오지만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도리어 앞서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하고, 성경 묵상에 집중해야 한다. 또 그렇기에 이번 성탄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 묵상이 절실한 시기다. COVID-19의 여파가 여전히 버겁게 느껴지는 이 시기의 한복판에서 맞게 될 이번 성탄절은, 여실적이게도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생히 되새길 절호의 기회다. 이런 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책을 마주하니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요단출판사에서 펴낸 이장렬 저, 〈25일간의 성탄 묵상〉 그리고 이장렬, 이충재 공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 25일간의 성탄 묵상 II〉가 바로 그 책들이다.

『25일간의 성탄 묵상』은 저자가 마태복음 1-2장을 원문에 근거하여 깊이 묵상한 내용을 쉽게 풀어 해설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각자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과 한 줄 기도를 제공한다. 저자 이장렬 교수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닌 의미와 감동을 현대의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끼도록 도우며, 특별히 독자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

혜에 대한 진한 감격을 회복하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창립목사 및 목회리더십 연구소 대표)는 본서를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탁월한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현장에 관심을 가진 이장렬 교수의 묵상은 탁월합니다. 그의 묵상을 따라 12월 한 달간 매일 점심 전후로 15-20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활동의 혼란 속에서 상실한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편으로 준비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 25일간의 성탄 묵상 II』은 유사한 구성 및 전개 방식을 따르지만, 성탄절에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책, 요한복음에 집중한다. 저자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1:1-18) 및 예수님의 ‘나는 ~이다’ 선언을 기록한 일곱 개의 은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독자들을 친절히 안내한다. 첫11일간(Days 1-11)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도록 도우며 특별히 ‘말씀’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를 깊이 되새기도록 독자들을 안내한다. 이어지는 14일간(Days 12-25)은 요한의 의미심장한 은유들(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포도나무)을 하나씩 묵상하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탄절의 참 뜻을 삶 가운데 회복하도록 격려한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023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현장 및 온라인 입학설명회

미국시간 2023년 1월 6일 (금) 오후 4시
한국시간 2023년 1월 7일 (토) 오전 9시
(참석 후 등록시 전영료 100불 면제, 아래 QR코드로 참가신청)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2023년 1월 20일 (금)

EARLY BIRD 등록혜택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류 접수시 전영료 100불 면제

학위과정

학사과정: 신학, 사회복지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석사과정: 교역학, 교역학 원목과정 (Korean & English), 교역학 전문코칭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결혼과 가족치료학
박사과정: 선교학 박사(DICS),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Certificate 과정: 전문원목과정 (Korean & English)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특징



전세계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Canvas를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



자성과 영성을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해외한인장로교단(KPCA) 및 여러 교단들과 단체들에서의 사역 기회



유학생 환영 I-20 발행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비롯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 (1.5세 장학금)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 Tel. 562.926.1023



입학설명회 참가신청



본교웹사이트

“소그룹,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핵심”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향 제시

남양주빛과소금교회(담임 김한원 목사)가 지난 4일 진행된 제직 말씀 사경회에서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9월 출판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종교 현황
지 대표는 “2014년 무종교인과 종교인 비율이 50:50에서 2021년은 60대 40으로 한국사회가 탈종교화사회가 되고 있다. 연령별 종교인 비율도 2021년 기준으로 20대가 22%, 30대 30%, 40대 32%로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종교 분포 변화는 2021년 불교 16%, 개신교 17%, 천주교 6%로 개신교가 1위 종교가 되었다. 연령별 종교 분포의 경우 20대는 불교 4%, 개신교 14%, 천주교 3%, 30대는 불교 6%, 개신교 19%다. 20,30대 종교인 중에서 60%가 개신교다. 한국교회가 부패하면 한국사회가 부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교회가 건강하면 한국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개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성, 윤리성, 영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천의 증가다.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은 출석 교회에 나가지 않고 타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듣는 크리스천을 말한다. 앞으로 플로팅 크리스천이 한국교회에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에 현장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확산이다.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제도권 교회가 싫은 사람을 말한다.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 이후 SBNR이 급증, 50%가 넘는다.

세 번째,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심각하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질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2020년 27%, 2021년 31%에서 2022년은 39%까지 증가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2020년 22%에서 2021년 14%까지 떨어졌다.

네 번째, 현장예배 참석자가 감소했다. 온라인 신앙이 등장하고 현장예배 참석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전국 평균 30%가 감소했다. 교회학교 학생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50% 미만으로 아이들이 절반 넘게 없어졌다. 또 2020년 이후 새 신자 비율이 코로나 이전 대비 20%로 떨어졌다.

다섯 번째, 3040 허리세대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30대, 40대의 현장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다. 또 이들의 자녀가 교회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기아대책

여섯 번째, 코로나 이후 교회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교회 재정 상태는 '어렵다'가 29명 이하 교회는 79%, 500명 이상 교회는 4%이며, '여유 있다'는 29명 이하 교회는 4%, 500명 이상 교회는 65%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역의 과제
지 대표는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의 과제다. 한국 학령인구가 20년 사이에 42%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회학교 학생 수는 일반학생보다 1.3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 교회학교 살리기다. 다시 말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교회학교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크리스천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을 조사한 결과 2019년과 2021년 모두 1위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2위는 코로나 이전 '목회자'에서 코로나 이후 '아버지'로 바뀌었다. 또 신앙성장에 도움받은 것 1위가 '교회 예배/설교'라고 응답했다. 2위는 코로나 이전 '집회/수련회'에서 코로나 이후 '가정예배'로 바뀌었다. 결국 부모 신앙교육이다. 기독교가 가족종교화 되어 있다며 다음세대 교육 과제는 교회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사역의 과제다.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0대 청년 31%가 그렇다고 답했다. 출석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 20대 청년은 '시간 없어서/바빠서', '엄매이기 싫어서', '신앙심/믿음이 안 생겨서', '이념적/정치적 발언이 심해서' 순으로 답했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념 문제가 순위권 안에 들어왔다.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보수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을 사랑하려면 교회에서 이념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인 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만족 이유로 높았다. 다시 말하면 청년은 교회 만족 이유가 목사님 설교가 아니다. 진정성 있는 교제, 청년부 안에 소그룹 활성화 여부가 중요하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 밖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에 청년들은 관심이 많다. 반면, 불만족 요인 1위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다. 요즘 청년들은 수직적인 지시 문화, 수직적인 사역문화가 맞지 않다. 2위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극복하고 같이 포용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응 방향으로 소그룹 시스템 구축, 하이브리드 처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지향을 꼽았다. 그는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성을 가장 뒷받침해주는 기제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슈퍼개인의 시대로 변하면서 개인 특성, 취향을 고려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인간관계 트렌드도 나홀로 문화가 늘고 있다. 이것은 예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의 신앙 활동을 비교해 보면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기본 신앙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 결정적인 격차를 보인 것은 전도활동이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 있다'는 응답이 소그룹 활동자는 34%, 비활동자는 14%였다. '전도대상자를 교회 초청했다'고 응답한 소그룹 활동자가 50%, 비활동자 26%로 전도비율을 환산하면 소그룹 활동자 17%, 비활동자 4%로 4배나 차

한국 감리교인 수, 최근 2년 간 약 10만 명 감소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2년 전보다 38만 명 이상 감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소속 교인들의 수가 최근 약 2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감 교세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인 수는 120만 3,824명으로 2020년의 130만 2,968명보다 9만9,144명이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교세현황 자료는 이미 지난 4월 나왔지만, 최근 열린 제1차 감독회의 자료에 실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이 자료에는 1998년부터 교세현황이 집계돼 있다. 교인 수는 1998년 132만9,437명에서 2010년 158만7,385명에 이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꺾여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인 수가 정점이었던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줄어든 교인 수는 38만3,561명이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 수는 6,660곳(2020)에서 6,659곳(2022)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교역자 수는 9,784명(2020)에서 1만506명(2022)으로 722명이 늘었다.

김진영 기자

이가 난다.

또 “소그룹 정기적 참석자는 57%, 가끔 참석자는 32%, 미참석자는 29%가 출석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소그룹 활동별 참석률은 정기적 참석자가 77%, 가끔 참석은 63%, 참석 안함은 63%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할수록 현장예배 참여율이 더 높다.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청하는 교회 대상도 소그룹구성원이 제일 높다. 그만큼 소그룹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지현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평화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담임목사 구봉주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30
-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주 일 오후 2:00
- EM(영어예배) 주 일 오전 9:30/11: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축 성 탄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대형Promise 오후 2:0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목요여성예배 오전 10:30



박신웅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교회 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풍성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축 성 탄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F. (213) 383-5085
 info@joohyang.org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EM예배(1부) 오전 9:00
 EM예배(2부)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 코로나 제한 위반 혐의 벌금 2억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개인 뉴섬 주지사가 내린 예배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교회가 부과받은 벌금 21만7천5백 달러를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최근 산타클라라 카운티 관리들이 갈보리 채플에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갈보리 채플 산 호세와 마이크 맥클러 목사는 2020년과 2021년에 대면예배를 드린 후, 임시제한명령과 예비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모독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카운티의 지침이 내려졌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린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 조치는 실내 교회 모임을 수용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시설, 쇼핑몰 및 소매업과 같은 세속 시설들은 새로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됐다고 CP는 전했다.

갈보리 채플 측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LA타임즈에 밝혔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은 교회에 불리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갈보리 채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내려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판결을 무효화했으며 향후 법적 도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CP는 전했다.

변호사는 “우리는 위험적인 공중보건 명령에 대해 카운티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방소송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항소심 판결은 갈보리 채플에 부과된 벌금 환수를 정당화하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을 거듭 인용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20년 브루클린 대쿠오모 로마가톨릭교구의 결정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당시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수준이 높은 지역의 예배당 참석을 제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유행 상황에서도 헌법은 및



갈보리채플교회 마이크 맥클러 목사. ©페이 스북

허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 명령에 대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견은 또한 2021년 4월 탄돈 대 뉴섬(Tandon v. Newsom)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공중 보건 명령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맥클러 목사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진실에서 가장 멀다”라고 말했다.

1천9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약 6백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운티는 실내 모임을 100명으로 제한했다. 맥클러 목사는 “누구에게도 교회에 직접 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며 “나는 법을 어기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갈보리채플 변호사 곤데이로는 당시 모임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이 카운티의 감염률 제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부적절한 메시지’로 강단 떠난 매트 찬들러 목사, 6개월 만에 복귀



매트 찬들러 목사. ©플라워마운드 빌리지교회 유튜브 캡처

지난 8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6개월 동안 강단을 떠났던 매트 찬들러(Matt Chandler) 목사가 돌아왔다.

크리스천헤드라인(christianheadline)에 따르면, 텍사스 플라워마운드에 위치한 빌리지교회(Village Church) 장로들은 12월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연구와 기도, 자아 성찰,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와 집중된 여러 시간들을 포함해 찬들러 목사에게 많은 시간을 요청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찬들러 목사는 순종, 확고함, 겸손으로 그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완료했으며, 관련된 모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그의 태도에 격려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로이스 리포트(Roys Report)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됐다.

지난 8월 장로들에 따르면, 찬들러 목사는 본질적으로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빈도와 친숙성’으로 인한 ‘선을 넘는’ 메시지를 여성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들은 “그의 행동이 ‘해임에 해당되는 수위라고 믿지는 않았다’면서도 “장로들에게는 더 높은 행동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4일 주일 강단에서 선 찬들러 목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평안이 온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1%라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것이다. 용서해 달라. 이제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장로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견해를 따라 ‘회복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일은 찬들러 목사의 교회 20주년 기념일이었다. 장로들은 “찬들러 목사의 복귀 날짜를 기념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우리의 목표가 이뤄질 경우 그가 돌아온다는 계획에 충실하기로 했고, 시기가 아름답게 맞았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美 도서관 행사에 ‘드래그퀸 허용하고 기독교인 불허’ 논란

배우 커크 캐머런, 어린이 책 읽어주기 행사 50군데서 거절

미국 내 5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이 드래그 퀸(여장 남성)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는 허용하면서도, 기독교인 배우의 행사는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기독교 배우 커크 캐머런의 책을 출간한 브레이브 북스(Brave Books)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개 넘는 도서관이 책 읽어주기 행사인 ‘스토리 아워(Story Hour)’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출판사에 따르면, 스토리 아워를 거절한 로드아일랜드주 로샴보(Rochambeau) 공립 도서관의 경우 스스로를 “매우 쿼어 친화적인 도서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대표는 답신에서 “공간을 예약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양식을 작성할 순 있지만, 귀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당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스토리 아워를 거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도서관은 현재 청소년을 위한 ‘퀴어 우산(Queer Umbrell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십대들이 쿼어 역사, 예술, 지역사회 지원 등을 배우고, 토론하고, 연결할 수 있는 클럽이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브레이브 북스가 소개한 또 다른 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시티하이츠/와인거트 브랜치(City Heights/Weingart Branch) 도서관이다. 이곳의 담당자는 출판사에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감안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모일지 장담할 수 없다”라며 캐머런의 행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머런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한 전투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공 도서관이 성경적 지혜를 가르치는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거부하면서도 ‘성별 표기 및 이름 변경 클리닉’은 승인하고 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캐머런은 자유의 섬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나무(일명 스카이트리)를 주제로 한 동화책 ‘너희가 자라나며(As You Grow)’를 이달 초에 출간했다.

공공 도서관에서 여장을 한 드래그 퀸 배우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는 수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일각에서는 “드래그, 그루밍, 소아성애를 정상화하기 위한 약탈적 행위”라고 비판이 제기됐



미국 기독교인이자 배우인 커크 캐머런. ©크리스천포스트

다. 일례로 텍사스주 공공도서관의 한 드래그 공연자는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60%는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가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29%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가 “세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반면, 14%만이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데 찬성했다.

김유진 기자

트위터, 아동 성착취물로 정지된 계정 수 2배 증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가 정지된 계정의 수가 2배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위터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콘텐츠(CSAM)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트위터와 오랜 시간 일해 온 고스트데이터(Ghost Data)의 안드레아 스트로파(Andrea Stroppa)는 최근 트위터에 아동 성착취물 퇴치 운동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다.

스트로파는 “트위터가 최근 아동의 성학대·착취 자료와 관련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했다. (이는)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공격적이다. 이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자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하루 (계정) 정지 비율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트위터가 콘텐츠, 특히 과거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매우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트위터는 이를 찾아 그것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트로파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트위터는 사진 코드와 글을 이용해 탐지를 우회하려고 시도한 1,300개 이상의 프로필을 포함해 44,000개의 계정을 제거했다.

현재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도와 주어 감사하다”는 트윗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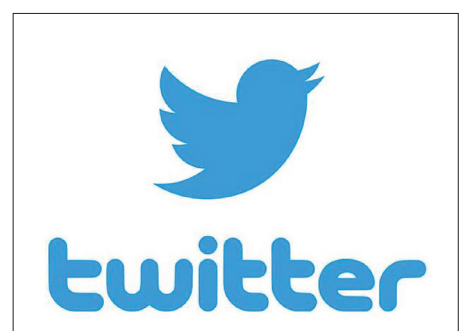
미국 국립성착취센터(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NCOSE)의 기업 및 전략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리나 닐론(Lina Nealon)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리나 닐론은 “플랫폼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 및 기타 불법 콘텐츠와 싸우기 위해 트위터가 취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소한 일론 머스크는 우리 사회의 거대하고 파괴적인 문제인 아동 성학대 (문제)에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윤리적 결정은 영웅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트위터의 행동은 (여전히) 이익이 최우선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닐론은 “트위터는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포식자들을 위한 문이었다”며 “작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결정’이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닐론은 “예를 들어, 알려진 일부 아동 성학대 자료의 해시태그는 제거됐으나, 해당 콘텐츠는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트위터가 이 같은 자료에 대한 보고 기능을 다시 추가했으나, 동시에 해당 보고를 조사하



트위터 로고. ©트위터

고 처리하는 부서는 제거했다”고 했다.

NCOSE는 올해 초 트위터를 성착취 자료를 홍보하는 기업 및 기타 단체인 ‘더티 dozen 목록(Dirty Dozen List)’에 올렸다. 트위터가 상업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성착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이다.

2021년 1월에는 트위터가 성매매범이 게시한 ‘10대와 또 다른 익명의 미성년자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에 대한 삭제를 거부하자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NCOSE는 “이 소송의 목적은 트위터가 어떻게 사람보다 이익을, 어린이의 안전보다 돈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희생시키면 부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플랫폼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활성화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언어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종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목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종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 주안여성결교회

83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구 오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침례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회기 오후 7:30
 토요일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661)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성령침례 목요일 저녁 8시
 리크레전트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기도회 오전 8:00

장형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9:00
 금요성경부 목요일 저녁 7:00
 목요일예배 목요일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정민 담임목사

새생명감사교회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T. (626)773-11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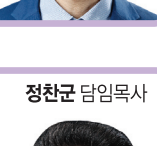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경부 목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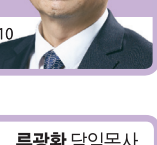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종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연제드(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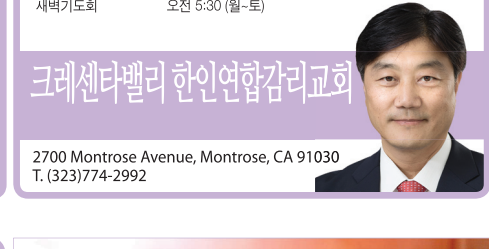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종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제사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가) 오전 6시
3부예배(제사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현정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가)도움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목회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en 교회)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예배 성령 신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i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종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가)도움(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가)도움(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wgm.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vc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국인 절반 “동성혼 법제화, 종교 자유 훼손 우려”



성소수자(LGBT)의 상징이 되어버린 6색 무지개기. ©Jasmin Sessler/ Unsplash.com

지난 8일 미국 하원이 동성 결혼 성문 화법(이른바 결혼 존중법)을 최종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은 이 법안이 종교 자유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는 6일 미국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권자의 62%가 두 개인의 모든 결혼을 연방법에 따라 보호하는 결혼 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40%는 동성결혼 법안에 대해 강력히 찬성한 반면, 33%는 반대했으며 21%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강력히 지지하는 집단의 82%가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을 강력히 반대하는 유권자 집단에서는 14%만이 이 법안에 동의했다.

법안 중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에 대해 유권자의 49%가 찬성했다. 그러나 45%는 해당 조항을 반대했으며, 그중 32%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라이언 뱅거트는 이 법안이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소송 위협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토론을 묵살하며, 신앙인을 공공 광장에서 배제하려는 (동성애) 활동가들에 의

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적인 소송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뱅크트의 이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절반(50%)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중 36%는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는 39%로, 그중 26%는 강력히 반대했다. 또 다른 12%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81%, 공화당원의 35%가 이 법안을 지지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유권자는 65%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동성혼을 불허하는 단체를 상대로 누구나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원 71%, 무소속 51%가 찬성한 반면, 공화당원 유권자는 25%만이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원(38%)이나 무소속(49%)보다 더 많은 공화당원 유권자(64%)는 이 법안이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킨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인종별로는 결혼 존중법을 찬성한 백인은 58%, 흑인은 73%에 달했으며, 기타 소수민족의 69%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의견에는 흑인(55%), 기타 소수민족(54%)은 과반수가, 백인 유권자는 46%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유권자의 75%가 이 법안을 찬성한 반면, 40~60세 유권자는 58%, 65세 이상 유권자는 52%가 찬성했다. 특히 40~60세 유권자들이 법안이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라는 데 가장 많이 동의했다.

김유진 기자

美 법원, 낙태 반대 이유로 해고된 항공사 승무원 복직 명령



사우스웨스트 항공. ©Pixabay

으로 해고했다고 배심원단은 판결했다. 이 후, 카터에게 5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카터는 2017년 1월 워싱턴 D.C. 행정 자금을 위해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주로 조직된 여성행진은 부분적으로 미국 최대 낙태 제공업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후원을 받았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카터의 신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카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여성행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조 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전국 노동권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노조 회장 오드리 스톤에게 보낸 후, 카터는 사우스웨스트 지도부와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우스웨스트는 카터의 낙태 반대 신념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카터가 상사와 만난 지 일주일 후,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전미노동권리법률재단 회장 마크 믹스는 성명에서 카터 사건에 대해 “사우스웨스트와 TWU 노조 간부는 카터가 자신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노조 간부들의 정치 활동에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 판결은 카터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노조 간부가 노조의 입장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가할 보복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갈릴리 근처 ‘번트교회’서 초기 기독교 비문 4개 발견”

최근 갈릴리 근처 ‘번트교회’(Burnt Church)로 알려진 장소에서 초기 기독교의 증거를 보여주는 새로운 비문 4개가 발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올이스라엘뉴스(All Israel News)를 인용해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바다 근처 히포스(Hippos)에 위치한 순교자 테오도로스(Theodoros) 교회에서 4개의 비문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교회는 7세기 초 페르시아 침략자들에 의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번트교회’라고도 알려져 있다고 CP는 전했다.

발견된 한 그리스어 비문은 “주 하느님, 받아들이소서! 아멘!”이라고 적혀 있다. 독일 쾰른대 고전연구소의 그레고르 슈타브 교수는 우라니아와 테오도로스가 이곳에 마지막 안식처로 개인 예배당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슈타브 교수는 “모자이크 비문의 언어는 음성학적 번역과 문법적 규칙 모두에서 현저하게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면서 비문의 구조가 그리스어가 현지 언어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올이스라엘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어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까지 마스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리스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픽사베이

생각은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 전례와 기도의 원어는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맥락에서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또한 예배 공간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회중으로부터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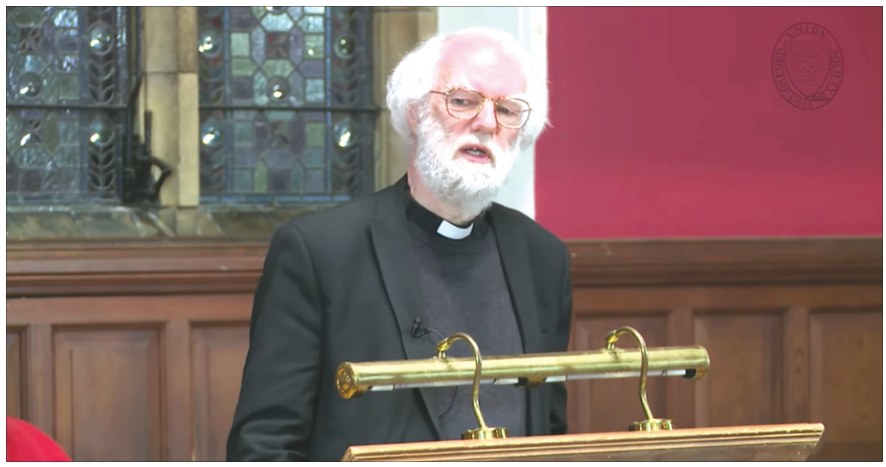
테오도로스 교회는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기독교 상징주의가 담긴 카펫과 모자이크가 있다.

하레츠에 따르면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7개 교회 중 하나이며 다른 비문은 2019년 발굴 팀에 의해 발견됐다.

이미경 기자

영국성공회 전 대주교

“동성혼 · 낙태 반대, 악마화 중단해야”



로완 윌리엄스 전 캔터베리 대주교. ©옥스포드유니온

로완 윌리엄스 박사, ‘논쟁적 담론 무기화’ 지적

영국성공회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박사가 동성 결혼, 낙태 등의 윤리적 논쟁이 “어떤 반대 의견도 괴상하고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는 오늘날의 문화 전쟁 속에서 무기화되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영국 텔레그래프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스 박사는 아직 방영되지 않은 BBC의 리스 강연 시리즈에 최근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윌리엄스에게 “동성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는 복음주의 등록관은 어떻게 되는가?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가톨릭 의사에 대한 법적 허용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박사는 “다양성 사회에서 신념의 공개적 표현이 얼마나 파괴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와 같은 질문은 현재 북대서양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화 전쟁에서 무기화되었다.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미묘한 탐색을 어느 정도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양심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억압적인 부류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신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윤리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의로 악의를 돌릴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낙태나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논쟁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다.

윌리엄스는 2003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모듈린 칼리지의 학장직을 위해 사임을 발표한 2012년까지 세계성공회 수장으로서는 캔터베리 대주교직을 역임했다.

2012년 영국 가디언지는 윌리엄스에

대해 “재임 기간 동안 전 세계 성공회 교회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분열로 특징되며, 이를 치유하는 데 그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윌리엄스는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진보적인 견해와 이러한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수 및 진보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반면 훌륭한 웅변과 명료함을 갖춘 설교적 재능 덕분에 다방면에서 존경을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일부 성공회 주교들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에 기초한 교단의 성경적 결혼 교리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스티븐 크로프트(Steven Croft) 옥스포드 주교는 영국성공회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Together in Love and Faith)’라는 제목의 장문의 에세이를 통해 “동성 결혼식 축복 금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성공회는 규정상 성직자의 동성 결혼식 축복과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14년, 윌리엄스는 텔레그래프지와 인터뷰에서 영국을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명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구에서 습관적인 (기독교적) 관행이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후기 기독교(post-Christian)”이라며 “기독교 국가를 헌신된 신자들의 국가처럼 들리겠지만 영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2021년 영국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2%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1년 인구조사 당시 59.3%보다 크게 감소했다. 반면, 전체 영국인 중 무종교인의 비율은 10년간 25.2%에서 37.2%로 급증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관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주일 3부 평야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주일 오전 6:00

19514 Perado St., Northridge, CA 91321, (818)88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찬양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예배 오후 9:30,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평야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재미예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00(화-금) 설교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2

“Inter CP International(인터콥선교회)와 영적 동맹을 위하여(1)”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에선 미주 전역에 50개의 지부를 통해 지난가을에만 약 1천여 명의 비전 스쿨 수료자가 나왔다. 비전 스쿨 수료 후에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FO(단기선교)가 미주에서만 약 400여 명이 참여한다.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이 지면을 통해 간략히 소개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인터콥은 개신교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평가받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의 로잔대회(1974년)에서 채택한 로잔언약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선교회로서 지난 40년간 최전방 프런티어 미전도 종족 전문인 선교를 추구하며, 특히 이슬람권 선교 현장을 찾아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한 현지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회이다. 처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열방을 향했던 순수한 기독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평신도 전문인 선교회로 시작되었다.

에 비해 인터콥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그리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동남아 나라에선 교회 개척 운동과 선교부흥이 급진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지상대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 선교사들과 단기팀들의 연합 사역의 결실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활력 있게 나아가고 있다.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갖고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미주의 선교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한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로 연합하는 기도 동역자들, 각자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선교 연합의 사역에 함께 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며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자 선교 연합이 있음을 감사한다. 이들에게 다른 이득이 없다. 목적은 오직 하나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온 세상에 타협 없이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세계 가운데 일어서고 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전 세대(어린이, 청년, 남녀노소)가 일어서고 있는데, 지금 많은 지역교회가 그 영적 기개를 모르고 있다. 세계의 영적 기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 필자는 미력이나마 경험하고 또 보아 온 많은 세계 곳곳의 선교 부흥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쓴다. 어느 때 큰 안타까움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보며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한 마음처럼 선교의 불이 꺼져 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필자도 슬피 울며 이 글을 써 갈 때가 있다. (계속)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탈리아 패두어에 유명한 부자 밍티스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 비앙카(Bianca)는 매우 아름답고 상냥하여 구혼자가 줄을 섰다. 반면에 큰딸 캐서리나(Katherina)는 거칠고 말괄량이인 탓에 구혼자가 없습니다. 그레미오와 호텐쇼라는 젊은이가 비앙카에게 구혼을 하는데 비앙카의 아버지 밍티스타는 “제발 그만 조르시오. 내 맘은 확실합니다. 딸말을 시집 보내기 전에는 둘째 딸을 줄 수가 없소. 만약 두 분께서 큰 딸 캐서리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찬성이요. 그 애를 만나보시구려.” 그들이 캐서리나를 찾아 갑니다만 허사입니다. 자신에게는 관심도 없고 동생 비앙카에게 구혼했던 남자들이 못마땅한 캐서리나는 그들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리나를 상대합니다. 그가 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페트로치오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캐서리나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캐서리나의 아버지 밍티스타를 찾아가 이번 주일에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밍티스타는 석연치 않지만 캐서리나의 결혼이 집안의 관심사였기에 페트로치오에게 딸과의 결혼을 승낙합니다. 순식간에 이뤄진 일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예정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캐서리나의 결혼도 궁금했고 캐서리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신랑도 궁금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주례를 맡은 신부까지 왔는데 신랑이 도착하지 않아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특히 캐서리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페트로치오는 거의 거지꼴입니다. 겨우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페트로치오의 기행은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주례하는 신부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또 페트로치오는 고향을 지르는 등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혼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치오는 태연합니다. 그는 캐서리나를 데리고 자기 저택으로 떠납니다.

한편 루센쇼는 밍티스타의 집에 가정교사로 위장 취업하여 비앙카에게 접근하였고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비앙카를 좋아했던 호텐쇼도 음악 담당 가정교사로 취직하여 비앙카의 마음을 얻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루센쇼가 차지한 비앙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비앙카는 결국 루센쇼와 결혼합니다. 비앙카를 두고 루센쇼와 경쟁했던 호텐쇼는 자신을 사랑했던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페트로치오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페트로치오는 음식에 갖은 트집을 잡고 캐서리나에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소란을 피워 잡도 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 집에 온 이후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캐서리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캐서리나는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 후 페트로치오가 아내에게 처갓집에 가자고 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집을 챙기고 옷을 준비하던 캐서리나는 또 몇 번씩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페트로치오는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언어로 트집을 잡고 밀당을 합니다. 캐서리나를 찢찢맙니다. 고향에 도착하니 비앙카의 결혼식이 막 끝나고 루센쇼와 비앙카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페트로치오 부부, 루센쇼 부부 그리고 호텐쇼 부부가 모였습니다. 세 남자는 흥미로운 내기를 합니다. 누구의 아내가 가장 순종적인가? 하는 내기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캐서리나가 가장 온순한 아내로 뽑혔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극은 끝이 납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The taming of the shrew>의 줄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희극이지만 내용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윤리와 규범에서 상당한 문제가 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페트로치오의 행동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본 작품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말괄량이 캐서리의 기행을 기행으로 제어하는 페트로치오를 소개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말괄량이가 된 북한(핵)문제나 폭력적 노조파업에는 기행적 대응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12월 현재 한국 정부가 노조파업을 대하는 방식이 말괄량이 길들이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말괄량이 캐서리나의 행동의 변화 원인입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남편의 기행에 당황하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캐서리나는 남편의 기행이 두려워 자신의 기행을 접습니다. 변화의 가치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캐서리나의 변화가 더 건강한 변화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2 Midwest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seminaries and universities such as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others.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을

마태복음 21:28~3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비유를 곁한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의 대화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다가 무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임을 밝히시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1. 만아들의 거짓된 불신앙

만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하니, 가겠소이다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구령(救靈)성과를 위한 영적 사역장, 즉 교회를 일컫는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다른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시는 지시였는데, 아버지께 가겠다고 즉답(即答)은 해놓고 가지 않았으니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태도와 모습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질적 생태(生態)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차는 경문을 넓히고 옷술을 크게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람바 호칭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지도한다면 서로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짓 신자, 죽은 심령임을 지적, 경계하라 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했고, 15절에서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지옥자식이 되게한다.”했으며, 16절~19절에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하니 소경들이여 어느것이 크뇨 그 예물이야 예물을 거룩하게하는 제단이나”로 책망하셨고 23~24절에서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하리라”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28절엔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하셨으며, 29~33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지적들이요, 애타는 책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과 외식하는것, 예수님 이름위에 군림하거나 행세하려는 육체뿐인 오만 무례한 종교지도자들을 가장 싫어하심을 명심하고 영적인 성도로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과 불신이 너무나 만연해 가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禍)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하시며 지적하신 생명없는 겉치레뿐인 죽은 신앙을 책망하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창기들의 회개하고 구원언어 기뻐하는 믿음생활,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젖어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지도자들은 직분적 권위와 교만한 자세를 굽힐 줄 몰라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치고 있음을 책망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서둘러 겸손하게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시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시 107:10~12)

2. 둘째 아들의 회심(回心)과 산 신앙

여기 둘째 아들이라 하심은 그 당시 멸시와 천대로 사람대접 받지도 못하고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던 하급시민(下級市民)들로 본문(本文)에 명기(明記)된 세리들과 창기들같은 수준의 천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싫소이다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회심을 통한 구원언어는 기쁨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생명사역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신뢰와 기대 가운데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엔 자기 형편과 입장을 우선시하

라고 싫소이다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즉시 거부하고 말았으나, 아버지의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회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려 포도원으로 갔고 순종의 보상으로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재세시(在世時)에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거리의 소경 저지 바디메오, 수가성의 창녀등 죄값에 시달리던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순절 이후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전세계로 뻗어 가던 중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120여년의 한국 교회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먼저 믿었다는 분들의 언행(言行)이 본(本)을 세우지 못한 폐단으로 새신자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소망적 신앙

마태복음 5:13-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중략)...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신 말씀대로 목사는 참 목사다운 언행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들도 제각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며 언어예절과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

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어있고 인간 자기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밝혀야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용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18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찌다가 받아 들처럼 말씀에 붙잡히지도 이끌리지도 못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외식하는 거짓 신앙으로 심령이 죽어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둘째 아들을 본받아 서둘러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며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으로 전도에 힘쓰는 포도원의 생명사역 역군이 됩시다.

나부터 서둘러 구원언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섭시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간 사고발생시 만만치않은 금액까지 알려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 칠면조 오븐떡 /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말을 아끼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을 아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 줄 아는 사람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잠 17:27). 말은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아깁니다. 사랑하는 것을 아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아깁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

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아깁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껴줍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나 도구를 소중히 다룹니다. 동물을 아끼는 사람은 동물을 사랑합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잘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끼는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찻잔을 아끼는 사람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사용하곤 합니다. 아끼는 것은 적절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한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킵니다.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 21:23).

말은 칼과 같습니다.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병든 사람을 살립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소망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말을

잘할 때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중요한 일에 동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는 말을 삼가고 말을 아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났을 때 말을 아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함부로 한 말이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anger(분노)에 한 글자만 더하면 danger(위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했을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위험해 집니다. 독일어에서 “분노”(Ärger)라는 말은 “나쁜, 못된”(arg)이란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안셀름 그륀은 그런 까닭에 분노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분노는 의분이 아닙니다. 설령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잘 조절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속할 때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여러 번 범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약속할 때

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보다 더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논쟁 중에 있을 때 말을 아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말싸움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잠 25:11). 말을 잘하면 사람이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더해 줍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적을 친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남”이 “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님”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다리를 놓게 되고, 말을 잘못하면 벽을 쌓게 됩니다.

말을 잘하면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기회를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길은 침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숙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을 아주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아끼므로 더욱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신앙 클래식 3 - 벤자민 슈몰크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1848년, 평양에 사는 백지용이라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태어났습니다. 백지용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실망한 나머지, 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

다. 결국, 백과부가 됩니

다. 그녀가 세운 돌다리도 백선교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백선행은 교육사업, 학교사업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특히,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후원하였습니다. 평양에 있는 기독교계 학교들이 거의 모두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광성학교에 전담 1만 4천평을 기증하였고, 13만원을 기증하여, 광성학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또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송현여학교에 전담 2만 6천평을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덕보통학교에 6천 원, 송인상업학교에도 1만 3천원 상당의 땅을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평양에 조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의 부탁을 기꺼이 후원할 정도였습니다. 백선행이 85세에 소천하기까지 그녀가 기부한

금액은 대략 31만 6천원이었는데, 이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1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백선행처럼, 60세에 평평거리며 살만해졌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백선행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을 것이 뻔해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거거서 거거고, 입는 것도 거거서 거거며, 사는 것도 거거서 거거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을 시기 적절하게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과부가 되고, 백과부가 백선행이 되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진유철 칼럼

나쁜 것을 복으로 바꾸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생은 언제나 투 트랙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합니다. 모두에게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은 힘들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오히려 성경을 8독 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세계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까지 하지 않던 온전한 심일조를 실천하게 되었는데,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인 사업이 지나보면 플러스가 되는 분명한 하

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나쁜 일을 만나지 않거나 피하여 간 사람들이 아니라, 복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명절을 맞이하여 부푼 가슴으로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황당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재수 없어 보이던 나쁜 일이 바뀌어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아내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남는 이런 믿음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봉변에 가까운 나쁜 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나쁜 일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나와 그 날 앞

에 엎드려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경에 '아이로'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은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이영훈 목사 초청 LA축복성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로 인해 60여명이나 되는 귀한 손님들이 각각 다른 항공편과 일정으로 한꺼번에 오셨으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호텔을 준비하고, 공항에서 손님들을 영접하고, 많은 분들을 라이드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돕고, 무엇보다 행사를 은혜 속에서 진행하는 일들로 평소보다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힘들어서 평소엔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받은 성령님의 감동을 전했다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쌓여진 눈물의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될 것과 미주 전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특별새벽예배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다섯 분의 목사님들도 한결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나쁜 일을 복으로 바꾸는 참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나 자기 내면의 체면과 자존심, 나쁜 일에 대한 번뇌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합니다. 2023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정기공동의회를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선택과 결단으로 어떤 나쁜 일도 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고

중국동북지역 조선인 항일무장투쟁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9)



김 종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 독립군 양성소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이는 불법적인 일제의 만행이었다. 고종황제는 이 조약에 황제 인장(印章)을 찍은 바 없다. 이로인해 한반도 각지에서는 의병항쟁이 불 일듯 일어났다. 하지만 1911년 황해도 평산전투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활동이 어려워졌다. 국내에서 의병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의병장들은 부대를 거느리고 중국동북지역과 연해주로 이동하여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연해주와 간도가 독립운동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병장들은 준비되어지만 독립군을 무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이런 필요에 따라 1912년4월 이동녕과 이회영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강습소(新興武官講習所)'를 창설한다. 강습소는 1913년4월 '신흥학교'로 개칭되고, 1915년 다시 '양성중학(養成中學)'으로 개명되는데, 그 배움의 과정은 '4년 본과 과정'과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연령으로는 18세부터 30세까지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르치는 과목은 다양했지만 군사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 교육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동북지역 항일무장투쟁의 명분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독립군들은 더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1919년2월, 동북지역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무오 독립선언서(戊午獨立宣言書)'를 발표하고, 여준, 김좌진, 박찬익, 조소앙, 정원택 등은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창립한다. 그리고 상해, 연해주 지역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운동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동시에 조선 국내에서 군사금을 모아 독립군 양성을 도왔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1919년 중국 동북지역 각지 조선인 항일 단체는 무려 45개나 되었고, 참가인원은 8,450명에 달한다. 그 중 연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간도국민회' 회원 수만 무려 3,000여명이 넘었다. 그리고 사령관 안무가 지휘하던 무장대원의 수가 무려 450여명이 넘는다.

◆ 항일투쟁 무대의 변화

'간도국민회'는 1919년 5월 '간도대한국민회'로 개칭한다. 그 산하에 '대동단(大同團) 간도본부, 광복단, 총렬대, 맹호단, 철혈광복단, 대한청년회 등의 조직을 두었다. 그리고 1920년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위한 '국민회

군'을 조직한다. 이들은 국민회 각 지방 소속 경위대 출신이며 소련에서 훈련받은 결사대 출신이었다.

일제는 1920년 4월, 연해주 신한촌을 급습해 독립군 색출작전을 펼쳤다. 이때의 참변으로 많은 무장 독립군 핵심인사들이 순국했고, 많은 한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연해주 독립군기지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간도대한국민회'는 1920년 같은 해 5월 흥변도와 안무를 영입하여 지도력을 강화한다. 이로인해 독립군 항일무장투쟁은 끊이지 않고 간도를 중심으로 계속되어졌다. 뿐 아니라, 그 규모는 더 커지고, 군사력은 더 강화된다. 즉, '간도대한국민회'는 다른 항일무장부대와 연합하여 '북로독군부(北路督軍府)'를 결성하고 산하에 4개 대대 무장대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일제 정규군과 전투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전투력을 갖춘 명실상부 독립군 부대다.

'항일무장부대'의 전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다. '봉오동 전투'는 흥변도장군의 '국민회부대'가 홍춘현 봉오동에서 1920년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4일간 일본군 대대와 벌인 전투였다. 이는 연변 조선인의 항일부대가 연변 경내에 있는 일본 정규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전투였고,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이후 1920년 10월13일 '독립군', '국민회군', '신민단', '의민단' 등 각 항일부대는 흥변도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연합부대를 창설하는데, 연합부대의 제1연대는 흥변도장군이 인솔하고, 제2연대는 김좌진장군이 인솔하기로 했다. 연합부대는 1920년 10월21일부

터 26일까지 6일간 화룡성 삼도구 청산리 부근에서 일본군과 크게 전투를 벌인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전투'다. 연합부대는 청산리전투에서 연변지역 조선인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다. 하지만, 이 전투가 화근이 되어 연변지역 조선인들은 크게 참변을 당한다.

◆ 한인들의 참변

청산리 전역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군은 청산리 부근 1천여 호가 거주하는 마을로 진입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총살한다. 어떤 경우는 집에 가둔 채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쇠줄을 묶은 후, 그 쇠줄을 다시 코에 꿰어 10여 리를 끌고 다니다가 총살시킨 일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가죽을 모두 벗겨 두 눈을 뽑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한다. 연변지역 조선인들은 이렇게 '대한독립(大韓獨立)'을 위해 일제와 싸웠고, 고통당했고, 이렇게 죽어갔다.

일제는 조선인 항일무장단체와 격전을 벌이며 조선인 집거지를 토벌해 나간다. 결국 항일투쟁의 중심지는 연변에서 길림성 남부와 요녕성으로, 그리고 또 흑룡강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일제가 반일(反日)운동 단체를 탄압한다는 구실로 군경을 파견해 압록강 건너편 요녕성 동남 일대를 침략하려하자 봉천 당국은 조선인을 중일(中日) 외교 분쟁의 화근으로 여겨 조선인 반일(反日)운동을 단속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 9월 17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정의 직속 군대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의 핵심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관계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 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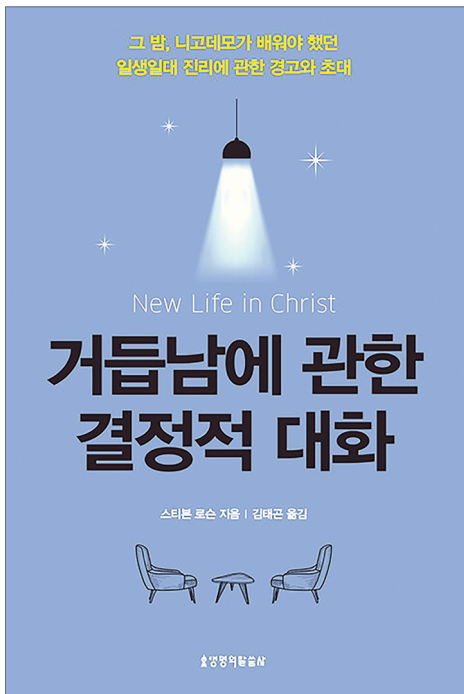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변화로만 바깥 변화시킬 수 있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종생의 은혜를 입기 위해 가시적으로 교회에 포함돼 있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가라지로 남게 된다. 이토록 거듭남이 중요하지만, 실전적으로 교회는 거듭남을 그만큼 강조하지 않는 듯하다.

교회에 등록하면 바로 '형제' 혹은 '자매'가 된다. 물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이라는 이유로 신자나 불신자나 서로 '형제'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 않다. 교회가 등록 교인을 형제자매라 부르는 이유는 교인이 오래 출석하고 나면 그들의 거듭남과 상관없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초자연적 역사는 현장에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 혹은 오래 그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거듭남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니고데모가 속한 유대 종교인들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거듭남 없이 요구되는 교회의 가르침, 규율과 전통은 죄인을 종교인으로 만든다. 바리새인이 되게 한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를 얻어내려 애쓰는 자가 된다는 말이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다. 신비로운 성령 체험이나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거나 뜨거운 감정의 변화를 겪었을 때, 흔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꼈을 때, 그것을 '유사 거듭남'이라고 간주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복음을 성경이 말하고, 우리는 거의 평생 교회에서 그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도 거듭남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혼동과 무지를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스티븐 로슨은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결정적 대화>를 통해 오늘날 모든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듭남의 참 의미를 밝힌다. 거듭남을 일생일대의 진리로 여기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 독자를 경고하고 또 초대한다.

거듭남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어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남의 은혜를 입도록 초대하고 또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관하여 경고한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얻은 저자는 독자에게 이 책의 모든 장 마지막에서(총 16장까지 있다)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한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일이며 순전한 은혜이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회개와 주를 영접하는 길로 나아오라고 설득한다.

거듭남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다. 거듭남은 종교적 행위로 결코 얻을 수 없다. 거듭남은 우리의 1%가 요구되는 99%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역사다.

타고난 혈통과 인간의 뜻,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거듭남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이며, 그 효력은 일시적 열심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음과 뜻과 의지를 변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으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데까지 간다.

세상은 교회가 안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밖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지만, 참 교회는 오직 안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로만 밖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그 소원과 능력이 거듭난 자들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독대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주께서 말씀해주시는 참된 종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데 이르기까지 구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거듭남에 관한 결정적 대화

스티븐 J. 로슨 | 김태곤 역
생명의말씀사 | 272쪽

참된 거듭남과 구원은 자기 확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천 년 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말씀이다.

출생이 인생의 시작인 것처럼, 영적 출생 또한 참된 인생의 시작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요 3:3),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출생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초가 되는 교리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을 때 반드시 먼저 실천하라고 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된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힘주어 거듭 명령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참된 교회는(비가시적 교회) 거듭난 자들의 모임,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리 혼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서 행하리니
민수기 14:28

So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NUMBERS 14:28

LA씨티교회

일터선교사를 세우는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리더십훈련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예배(렉처오디비나)	오전 9:00

주소 및 전화

741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05
T. (323) 833-9090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씨니김 담임목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아바타 2: 물의 길>(제1화)

영화 <아바타> 속 종교사상과 기술문명 신격화

<늑대와 춤을> 서사와 여러 모로 흡사한 <아바타> 힌두교와 기독교 성육신 사상, 기술 통해 현실 구현 오늘날 인류 최첨단 기술에 종교적 의미 부여와 확산 인간을 신의 영역 끌어올리는 자기신격화 욕망 반영

◆기술과 인종윤리: SF로 재탄생한 <늑대와 춤을>, <아바타> 시리즈

금주에는 올해 마지막 블록버스터 기대작인 <아바타 2: 물의 길>이 개봉된다. 이 영화는 원래 작년 1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1년 연기돼 이번에 미국 본토 및 월드와이드 개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 개봉된 전작 <아바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며, 3D CG 기술에 신기원을 연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블록버스터 흥행제조기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며, 감독의 이전 최고 흥행작 <타이타닉>의 12년 간(1997-2009)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경신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아바타>의 서사는 1990년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과 제작, 주연을 맡았던 <늑대와 춤을>의 서사와 여러 모로 흡사하다. <늑대와 춤을>의 19세기 미국 서부 배경이 22세기 외계 위성으로, 수(Sioux)족 인디언이 외계 부족인 나비족으로 변형된 스토리라고 볼 수 있다.

2150년대, 고도로 발전된 기술문명을 가진 인류는 태양계와 가까운 항성계 알파 센타우리에 위치한 위성 판도라에 진출해 귀중한 핵융합 에너지 자원인 연엽테늄을 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위성의 원주민 외계 부족 나비족과 접촉하게 된다.

인류와 나비족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미군이 자원 채취를 위해 판도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나비족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자, 양측은 적대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와중에 하반신 마비로 영망이 된 삶을

살던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샘 워딩턴 분)가 이곳에 파견돼 나비족과의 교류 및 판도라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생체 분신 '아바타'를 배정받게 된다.

이 아바타를 통해 나비족과 접촉하게 된 제이크는 미군의 방침과 다르게 나비족의 문화와 생활양식, 그리고 판도라의 자연환경에 매료돼 몇몇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나비족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나비족과 함께 전투를 벌여 미군의 침공을 막아낸다. 그리고 마침내 하반신이 마비된 인간의 불안정한 육신을 버리고 정신을 완전히 아바타로 이전해 완전한 나비족으로 살아가게 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바타>는 비교적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선조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학살, 강제이주, 그리고 문화 파괴에 앞장섰던 미국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역사적 죄책감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바타>는 <늑대와 춤을>과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인종 간 화합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문화계의 풍조를 대변하는 작품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기술과 종교사상: <아바타> 시리즈 속 기술문명 예찬과 자기신격화 욕망

<아바타>의 서사 속 기술문명 설정 역시 이 작품을 여타의 SF 블록버스터 작품보다 훨씬 돋보이게 만들어준 요소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둔 정신전송 기술(mind transfer)과 인간복제를 연상시키는 생체 아바타 기술은 보다 완전한 육체를 얻어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을 자극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기술문명 설정이 <아바타>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



<아바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아바타 2: 물의 길>.

해야 할 요소이다. <아바타>는 작품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서사나 설정 속에 여러 종교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일단 '아바타'란 말은 인도 힌두교 성육신 사상을 집약하는 용어이다. 그래서인지 이 용어는 이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세계에 설정된 가상 캐릭터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영화 <아바타>는 작품 속에서 이 힌두교 종교사상을 인공지능 및 인간복제 기술을 통해 현실에 구현한다.

그런데 <아바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이고, 따라서 미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의 성육신 및 부활 사상을 채택해 작중 아바타의 특성을 설정한다.

파괴를 일삼고 죽음을 초래하는 악의 세력 미군으로부터 선량한 나비족을 구해내는 구원자 제이크가 '다른 육체를 입고'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염두에 둔 설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제이크가 하반신 마비가 된 불안정한 인간의 육체를 버리고 강건한 나비족 아바타로 정신을 완전히 이전시켜 재탄생하는 것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전 15:43)는 기독교 부활 사상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설정은 금주 개봉되는 <아바타 2> 서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작 <아바타>의 악역이자 제이크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마일스 대령(스티븐 랭 분)이 제이크와 마찬가지로 아바타를 통해 부활해 다시 한번 제이크와 대결한다는 것이 <아바타 2>의 시놉시스이다. 이처럼 <아바타 2>는 전편보다 더 분명하게 기독교 부활 사상을 서사 설정에 반영한다.

미국에서 저술된 소설과 희곡,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형태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기독교 사상을 서사 설정에 차용하

는 일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다만 <아바타>는 기독교 사상을 활용해서 오늘날 연구되는 인류의 최첨단 기술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흥행력을 바탕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영화 <아바타>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술문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인류의 더딘 윤리적 진보에 대한 비판이다. 작중 미군으로 대표되는 탐욕스러운 인류는 아바타라는 대단한 신기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겨우 외계 부족 착취와 말살에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제이크가 나비족 일원이 되기를 자처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육체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게 된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아바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란 바로 우리 인간이 꿈꿔온 구원과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과 은혜가 아니라 실은 인류가 이미 갖고 있었던 하나의 가능성이며, 이 가능성은 현재 연구되기 시작한 인공지능과 인간복제 기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발전된 기술문명이 인간의 생명 연장과 부활을 가능케 해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인류의 자기신격화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성육신과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속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 구현해내게 됐으니, 인간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위치에 올라선 것 아니겠냐고 <아바타> 시리즈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아바타> 시리즈는 정신을 전송하고 완벽한 육체를 복제해내는 기술에 도전하는 인류에 대한 칭송과 신격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이사야 30:18)

주 일 예 배

1부 7:30AM | 본당 및 온라인
2부 9AM
3부 11AM

영 어 예 배

11AM (주일) | 새교육관 채플

청 년 예 배

1:30PM (주일) | 본당

10AM (수) | 본당

능 령 의 수 요 강 해

5:30AM (월-금) | 본당

새 벽 기 도 회

6AM (토) | 본당

아 등 교 육 부

11AM (주일) | 교육관

중 고 등 대 학 부

11AM (주일), 7PM (금) | 교육관

주 일 한 국 학 교

1PM (주일) | 교육관

토 요 한 국 학 교

9:30-12:30PM (토) | 새교육관, 교육관

AWANA (K-6)

2-3:30PM (주일) | 새교육관 GYM

특 수 사 역 부

11AM (주일) | 소망관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YNC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77-1400 / Fax. 323-227-0718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2:11-12)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당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당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험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본당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밸리연합감리교회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정섭 목사

-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10408 Balboa Blvd, Gran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www.vkumc.com

에브리데이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www.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8:00am - 1부
9:30am - 2부 / 교육부
11:15am - 3부 / 교육부/ 향기마을
1:00pm - 4부(청년부)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9:30am / Sunday

Wednesday 수요일
7:30pm

Mon~Sat 월요일~토요일
5:30am - 새벽기도회

Address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